

독일, PET병 회수율 48%로 선두

2000년 세계 회수량 93만5000톤에 평균 20% 회수 ... 일본 34.5%

2000년 세계 PET병 평균 회수율은 20.2%로 독일 48.0%에 이어 일본이 34.5%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00년 35개국의 PET병 회수량은 93만5000톤이고 회수율은 평균 20.2%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일본의 PET병재활용추진위원회(회장 和田國男 東洋製罐 상무)가 최근 발간한 PET병 재활용 연차보고서(2002년판)에 따르면, PET병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이 10만톤 이상인 국가 중 독일이 48%의 회수율로 단연 앞서고 프랑스, 이태리가 20% 전후, 영국 및 스페인은 한자리수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.

PET병 재활용추진협의회는 2001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 「Polyester2001」의 참가에 맞춰 유럽 전체의 PET병 단체인 PETCORE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.

PET병 회수율 비교(2000)

(단위: 1000M/T, %)

국가명	회수량	생산(소비)량	회수율
일 본	125.0	362	34.5
독 일	48.0	100	48.0
미 국	356.0	1,597	22.3
프랑스	55.5	254	21.8
브라질	22.0	110	20.0
이태리	75.0	420	17.8
스페인	8.9	159	5.6
영 국	7.0	227	3.1
중 국	6.3	363	1.7
소 계	703.7	3,592	19.6
35개국	934.5	4,621	20.2

한편, 이태리의 PET병 회수 지정법인인 COREPLA는 일본의 재활용기술 시스템을 참고해 시스템이 일본과 매우 비슷하지만 플라스틱을 회수하기 시작했어도 분리 수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선별에서 손 선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16>